그랜드 래피즈 한인 은혜 교회 Korean Grace CRC

읽는다는 것 by 강영안

2021 06 15

정규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인문학적으로 중국의 주희의 읽기와 유럽의 렉티오 디비나의 전통을 소개해 주셔서 "읽기"에 대한 큰 그림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성경도 단순한 문자적 읽기를 넘어서 Context 의 이해와 읽는다는 것의 현상학과 해석학과 윤리학적 의미를 깨우쳐 주셔서 감명 깊었습니다. 단순히 읽는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해하고 삶에 적용함을 통하여 진정한 성경읽기를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정규현)

김보람

1 장에서 저자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는가, 과연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뉴비긴 목사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그에 대한 철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 예시로, 칸트는 범주는 어떠한 현상들을 문자로 옮기는 데만 사용되며, 문자를 읽는 다는 것은 경험한 범주를 통해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앎을 가질 수 없음으로, 문자는 현상계에 제한 된다고 설명한다. 가디머 또한 모든 이해는 해석학적 순환과 선판단, 적용에 의해 가능하다고 말하며 읽는다는 것의 의미를 새로운 지평으로 열어냈다. 이것을 토대로 저자는 읽는다는 것을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알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즉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정의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을 읽을 것을 권하고 있다.

2 장은 문자와 책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동아시아 전통과 서양 전통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플라톤과 장자의 예시를 통해 문자가 가지는 힘 - 약이면서 동시에 독인- 이란 그 문자에 의미를 부여해 신체화 시키는 것에 있으며, 그 힘을 다룰 때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장에서 저자는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고 있다. 저자는 성경이 사람의 문자이지만 하나님의 숨결/영으로 쓰인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듣는 마음)를 가지도록 하는 힘”이 있으며, 그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이어 말한다. 또 저자는 성경 읽기의 네 가지 유익함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에 대하여 이야기 하며, 성경 읽기 목적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내어,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완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리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지식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바꾸어 준다는 것이다.

4 장에서 6 장은 읽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읽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 인지,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다룬다. 특히 렉시오 디비나 방법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알아가고 거룩으로의 초대에 응하며, 고난을 “축복”으로 담아내는 것을 제시한다.

7 장과 8 장에서는 성경은 어떤 책 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며,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관적 읽기” 또는 “객관적 읽기”에 머물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성경 전체의 흐름 또는 역사, 장르를 이해해야 하며, 말씀을 스스로와 공동체에 적용하고, “공동 독서/묵상”에 힘쓰며, 여러 번역본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문학, 역사, 종교와 철학 책도 함께 읽는 것도 인격적 읽기를 위해 중요하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9 장과 10 장은 성경 읽기와 삶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성경은 우리의 사고를 새롭게 하는 창문 그리고 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구체적인 고통을 시작으로 비로소 사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존재 방식이며 양식이라 할 수 있게 된다.

읽는다는 것을 해부하고, 그 의미와 목적을 덤덤히 도전하는 책이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성경을 “읽음”으로 사유하는 연습을 해보려 한다. 처음에는 실수가 많겠지만, 언젠가는 나도 자전거를 타고, 창과 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